

할렐루야! 이 세상을 지키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총칼의 압제와 권세가 위협할지라도 주의 자녀들을 주의 손길로 늘 보호해 주시고,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레위기 26장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6월 17일 (토) 제 1925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캐나다 산불 연기 미 북동부 장악 뉴욕시 대기오염 세계 최악

CNN 뉴스에 따르면, 퀘벡에서 발생한 100건 이상의 산불에서 남쪽으로 유해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뉴욕시는 지난 6일 화요일 일부 지역에서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북동부와 대서양 중부 지역을 일주일 이상 주기적으로 뒤덮으면서 지속적으로 나쁜 대기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욕시의 대기질 지수는 화요일 밤 한때 200을 넘어섰는데, 이는 IQair에 따르면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다. IQair에 따르면 이 도시는 화요일 오후 10시(동부 표준시)에 주요 대도시 지역 중 최악의 공기질을 보였다.

화요일 밤 늦게 뉴욕시는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악의 대기 오염 수준을 기록했다고 IQair가 보도했다.

뉴욕시도 화요일 아침 잠시 1위를 차지했다.

그 결과 뉴욕주 중심부에 있는 최소 10개 학군이 화요일 야외 활동과 행사가 취소되었다. 이러한 활동에는 학업, 운동 및 과외 행사가 포함되며 야외 쉬는 시간과 체육 수업도 취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산불 연기에는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PM2.5)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은 가장 작지만 가장 위험한 오염 물질이다. 흡입하면 폐 조직 깊숙이 들어가 혈류로 들어갈 수 있다. 화석 연료의 연소, 먼지 폭풍 및 산불과 같은 출처에서 발생하며 천식, 심장병 및 기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기 오염 관련 건강 문제로 사망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6년에 약 420만 명의 조기 사망이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다.

화요일 뉴욕시의 대기 중



PM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지침의 10배 이상이었다.

"연기를 보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염이 심한 상황에서 실내에 머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이나 증상의 발달을 주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Barrett은 산불 연기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은 연기에 노출될 때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Barrett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는 우려되는 증상에 대

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라"고 말했다.

Canadian Interagency Forest Fire Center에 따르면 "이번 주 퀘벡에서 150개 이상의 활성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다른 캐나다 주에서 발생한 화재 수의 두 배 이상이다"라고 보고했다.

2023년 현재까지 퀘벡 전역에서 4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는 이맘때 평균의 두 배이다. 캐나다에서는 올해 지금까지 거의 900만 에이커가 산불로 불탔으며, 퀘벡에서만 거의 50만 에이커가 불에 탔다.

산불 연기가 서쪽으로 디트로이트와 시카고로 퍼지면서

화요일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되었다.

시카고의 국립기상청은 "기상 조건은 광범위한 오존 및 미립자 수준이 대기질 지수의 민감한 그룹에 유해한 범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활동적인 어린이와 성인, 특히 천식과 같은 폐 또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트로이트는 화요일 오후 IQair가 선정한 대기 오염 최악의 지역 10위 안에 들었다. 시카고의 대기질은 화요일 오후에 보통이었고 앞으로 며칠 동안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면으로 계속)



지구 온도 1.5°C 이상 높아질 수 있다!

BBC, 환경 전문가 맷 맥그라스 사상 최초 '기후 재앙 마지노선 1.5°C, 돌파 가능성 크다' 경고

지난 17일, 앞으로 5년 이내에 기후 변화의 주요 마지노선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사상 최초로 나왔다. 2027년경 지구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다 (Global warming set to break key 1.5C limit for first time).

유엔(UN) 산하 기구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Global temperatures set to reach new records in next five years).

인간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과 올해 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엘니뇨로 인해 그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5°C 기준점" 돌파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로 인해 화석연료 배출량이 실제로 증가하기 시작하기 이전인 19세기 후반보다 1.5°C 더 올라간다는 의미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준점 돌파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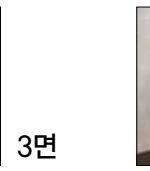
그러나 비록 단 1년 만일이라도 기준점을 돌파했다는 사실 자체는 지구 온난화 속도가 줄어드는 커녕 가속하고 있다는 뜻이기에 걱정스러운 신호다.

한편 '1.5°C 기준점'은 세계 기후 대화의 상징이 됐다. 지난 2015년 전 세계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C 이내로 제한하고자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5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박병섭 목사



4면 6.25 73주년을 맞으며 최학량 목사



16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요셉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요셉장학재단(The Joseph Scholarship Foundation)이 목회자 양성을 위한 2023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요셉장학재단은 퀸즈장로교회를 개척해 미주한인사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고 장영준 목사의 목회와 사역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미국내 신학교 재학생 (M.Div, Th.M, D.Min, Ph.D)	신청 마감	2023년 7월 10일(월)
신청서류	1) 목회에 대한 사명감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신앙고백문 (1장, 한영 가능) 2) 추천서 2통 (출석교회 담임목사 1통, 재학중인 신학교교수 1통) 3) 재학 중인 신학교의 성적 증명서 4) 이력서 (사진포함)	장학금수여식	2023년 8월 2일(수) 오후 8:00 퀸즈장로교회
신청 접수처	우편: 36-14 165th St. 3AN, Flushing, NY 11358 이메일: thejosephscholarshipfoundation@gmail.com	문의	정기태 목사 (917-733-7387)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재단에서 전화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합니다. 선발된 신학생은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장학금은 M.Div (신학생) 중심으로 수여합니다.

선발인원: 10명내외 개인당 2000불 지원

요셉장학재단 대표: 장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겸손함으로 헌신하며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해낼 귀한 차세대 사역자, 하나님의 사람을 꼭 찾게"

발행인 칼럼

인생은 아름다워



김성국 목사 (권장장로교회 담임)

인생이란 무제가 내겐 너무 크게, 그리고 아주 세계 부딪혀 왔다. 내가 여섯 살이 지난 후 얼마 있지 않아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가 하늘 나라로 가셨다. 더구나 최희준씨의 노래를 흥얼거리게 된 것은 열 살이 채 안 된 듯싶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어울려 가는 길에----' 그리고 아직 초등학생으로 있을 그 때에 어느 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속히 외우라고 한 문장 속에는 나도 모를 내 인생의 역사적 사명이 담겨 있었다. 이른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보다 앞서 거대한 역사의 파고(波高), 4.19와 5.16은 일찍 감치나를 지나갔다. '저 하늘에도 슬픔이'와 신성일, 엄앵란씨 주연의 '맨발의 청춘'도 초등학교 때에 알고(?) 지냈던 영화였다. 그 때 자우 제목으로 쓸 수 있었던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있었다면 필자는 '아-인생이여'라는 제목으로 썼을지도 모르겠다.

2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 나오는 조슈아는 나보다 더 어린 아이였다. 조슈아는 유대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슈아는 유대인 포로수용소에서 아버지 귀도와 함께 지낸다. 귀도는 조슈아를 독일군들이 모르는 곳에 숨겨 두고 음식을 갖다 주면서 포로수용소를 거대한 게임 장(場)이라고 돌려댄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1,000점을 먼저 따는 사람이 탱크를 상으로 받는다고 했다. 귀도는 조슈아에게 울거나, 엄마가 보고 싶거나, 배고프다고 하는 등 소리 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조용히 지내 나치에게 안 잡히면 1,000점을 얻어서 탱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어느 날 귀도는 나치에게 끌려가 처형을 당하는데 이 끌려가는 장면조차 조슈아는 게임 중의 하나로 여겼다. 영화는 조슈아가 더욱 자라난 시점에서 회상하면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영화 제목을 두둔한다. 대단한 관점이다.

그렇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 3:2-11) 의심할 여지 없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아름답다. 하나님의 관점,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곧 지나갈 오늘의 순간을 보다 깊고, 넓고, 길게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이란 주제가 버겁게 찾아 왔던 어린 아이 때의 시간들이 떠오른다. 돌이켜 보니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었을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어린 아이가 아닌 오늘도 그렇다. 오늘의 나의 상황은 오늘의 시점으로 다 헤아릴 수 없다. 해변을 찾아오는 잦은 파도가 끝내 물러갈 것을 알기에 그 파도를 무섭다고 말하지 않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던가. 나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오늘이라도 이렇게 고백한다. '인생은 아름다워'

서해 NLL 탈북 가족의 증언, 현재 북한 상황

'북한 극심한 식량난에 인육 취식 소문' BBC 보도

지난달 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두 가족은 "정도로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일부 마을에서 인육 취식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나돌

BBC 코리아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북한의 코로나 봉쇄 조치에 이어 올해 초 쌀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식량난이 가중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인된 이 자료에는 당시 이들이 서해 탈북에 사용한 어선 사진, 코로나 봉쇄 조치와 당국의 주민 감시 강화 등 북한 실상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유상범 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길이 10미터 5톤급 목선 타고 탈북

김 씨 형제 가족이 타고 온 어선은 길이 10미터에 규모 5톤급으로 비교적 작고 낡은 목선으로 확인됐다. 이 목선은 김 씨 형제 중 동생이 직접 운항하던 어선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북한 황해도에서 선장으로 일해왔다고 진술했다. 김 씨 형제는 가족들을 이 배 갑판 아래에 태운 뒤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 지난달 5일 NLL을 넘었다. 이들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한국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 강령군은 북한 황해도 남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다.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영토 중에서 최남단에 해당한다.

북한 주민이 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형제 중 둘째가 탈북 주도

이번에 어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주민은 모두 9명이다. 30대인 두 형제와 이들의 아내를 포함해 형제의 모친, 비교적 젊은 50대 장모(형제 중 둘째의 장모), 김 씨(둘째)의 처남, 김 씨(둘째)의 첫째 딸(5세)과 막내아들(3세) 등이다. 김 씨의 형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형제는 북한에서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며 한국 문화 사정에 밝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북한에서 선장으로 일했고, 형은 북한에서 일반 기업소에 다녔다고 한다. 유상



범 의원은 BBC 코리아에 "김 씨 형제는 노동당 당원이 아닌 일반적인 서민층"이라고 말했다. 이번 탈북은 선장으로 일했으며 바다 사정에 밝았던 동생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전언이다.

'자녀 세뇌 피해 탈북'

극심한 생활고도 고향을 떠난 주된 이유였지만 탈북 동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유상범 의원은 "형제 중 둘째인 김 씨는 '왜 하필 지금 탈북을 선택했는지'와 관련해 '첫째 딸이 유치원에서 세뇌 교육을 받기 전에 탈북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어린이들은 6살에 유치원에 들어간 뒤, 7살에 소학교(초등학교)에 입학한다. 태어날 때부터 김정은 일가에 대한 세뇌 교육 환경에 놓이지만, 체계적인 세뇌 교육은 의무교육 제도에 포함되는 유치원 때부터 본격화된다. 이들은 이런 세뇌 교육을 자녀에게까지 받게 할 수 없었기에 자녀의 유치원 입학 전에 반드시 탈북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봉쇄로 식량난 가중

서해를 통해 탈북한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전했다. 가장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가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코로나 상황에 대해 증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상당수 주민이 코로나에 걸렸다.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상당수의 주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지역의 경우, 마을의 리단위로 격리 조치가 이뤄지는 등 대규모 봉쇄 정책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북한의 물자 생산 유통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면서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 해안 지역에선 주민 상당수가 건설 수산사업소에 이틀만 등록해 놓고 출근하지 않은 채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 통제 감시 강화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감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과 남부 해안 지역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강을 넘거나 어린이들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수산사업소 노동당위원회는 흑시라도 있을지 모를 해상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 체계가 필요하며 각 선단장들에게 감시장비(카메라, 배터리, 컴퓨터 등) 구입 후 어선에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6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복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렐 벨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살렐 벨엘 교회는 ARP 교단 제1회 노회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렐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7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차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 자,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ARP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 자,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 자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목사 안수증명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설교영상
원서 접수 마감일: 2023년 7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들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살렐벨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1차 세미나
일시: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203 LA CA 90006
후원: 재미한국노인회
날짜 주제 강사
5/12 (Fri) 불안 장애 Anxiety Disorder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5/19 (Fri) 양극성 장애 Bipolar Disorder 김경준 박사, 워싱턴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5/26 (Fri) 우울증 Depression Disorder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6/ 2 (Fri) 약물 중독 Addiction 한영호 목사, 나눔 선교회 대표
6/ 9 (Fri) 강박 장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김경준 박사, 워싱턴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6/16 (Fri) 죽음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나승렬 목사, Salt 4 Co-Chair / 약속의 교회
워크샵 참석 베네핏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내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신 작성 대신 해 줌.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프로젝트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ASK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3388 W. 8th St. #103 LA CA 90005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기독교인들, 성경과 신앙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미국성서공회, 2023 현황보고서 발표

The Christian Post지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은 성경과 그들의 신앙이 깊이 관여되어 있고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에서 번창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 성서공회가 2023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State of the

Bible 보고서의 데이터는 미국 성인들로부터 수집된 2,761개의 응답을 기반으로 했고 오차 범위는 +/- 2.59%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크리스찬 포스트지가 발표한 내용이다.

“우리의 연구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사실, 즉 성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온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신앙에 헌신하고 성경에 온전히 참여하며 성경의 메시지로 변화된 기독교인이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에서 번창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또한 “성경에 종사하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고난을 겪지만, 차이점은 그들은 성경의 희망의 메시지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을 통해 삶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을 통해 그와 연결되는 사람들은 아직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람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 “정신과 신체 건강”, “의미와 목적”, “성경과 미덕”, “친밀한 사회적 관계” 등 전체적으로 인간 번영 지수에서 기독교인의 평균 점수는 7.8점, 비실천적 기독교인은 6.9점, 비기독교인은 6.7점이라고 밝혔다.

이 현상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영역으로 확장되어 기독교인의 평균 점수는 7.8점, 비실천적기독교인은 6.8점, 비기독교인은 6.5점, 의미와 목적에 관해서는 실천적 기독교인은 평균 8.1점, 비실천적 기독교인은 평균 6.9점, 비기독교인은 6.4점을 기록했다.

State of the Bible 연구는 “성경 사용 빈도와 그 메시지의 영향 및 중심성”에 대한 14가지 질문에 대한 개인의 응답을 측정하는 성경 참여 척도의 점수에 따라 응답자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Bible Engagement American은 Bible Engagement Scale에서 10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들로 정의되며, Movable Middle은 70에서 99 사이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며, Bible Unengaged는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사람들로 정의됐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미국인은 인간 번영 지수에서 평균 7.9점을 받았고 Movable Middle은 7.1, Bible Disengaged는 6.7점을 받았다. 평균 점수 7.8점을 받은 응답자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Movable Middle(6.9)과 Bible Disengaged(6.6)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Bible Engaged는 의미와 목적 영역에서 평균 8.3점을 받은 반면, Movable Middle과 Bible Disengaged는 각각 평균 7.0과 6.5점을 받았다.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고 “강하게 동의”하는 사람들은 인간 번영 지수에서 평균 7.8점, 행복과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7.7점, 평균 8.0점을 받았다. 의미 및 목적 영역에서, 반대로 “성경의 메시지가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에 대해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각 척도에서 평균 6.5, 6.4, 6.2점을 받았다.

지난 7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자들은 인간 번영 지수에서 평균 7.2점

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은 평균 6.6점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기도한 사람들은 행복과 삶의 만족도 영역에서 평균 7.1점, 심신 건강 영역에서 평균 7.0점을 받았고 지난주에 기도하지 않은 응답자는 두 영역에서 평균 6.5점을 받았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은 용서를 구하든 안 하든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고 동의한 응답자는 행복과 삶의 인간 번영 지수(7.7)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았으며 만족 영역(7.5) 및 의미 및 목적 영역(7.7)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데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각 6.0, 5.8, 5.8로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간 번영 지수(Human Flourishing Index) 및 다양한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 외에도,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강력하게 동의하는 응답자는 사람들의 “인내하려는 동기”를 조사하는 인내력 척도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캐나다 산불 연기 미 북동부 장악, 뉴욕시 대기 오염 세계 최악

(1면에서 계속)

한편, 피츠버그의 대기 질은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화요일에는 노인, 어린이, 호흡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같은 민감한 집단의 건강에 해로운 수준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일에는 온건한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 도시는 화요일 내내 대기질 경보를 받았다.

뉴욕주 대부분과 매사추세츠주 전체,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전체를 포함해 뉴욕과 뉴잉글랜드 일부

지역도 화요일 대기질 경보를 유지했다. 볼티모어, 보스턴, 하트퍼드, 프로비던스, 버몬트주 몬트펠리어와 같은 도시는 화요일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공기질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랭전선은 앞으로 며칠 동안 남쪽으로 이동하여 일주일 내내 연기를 남쪽과 동쪽으로 더 멀리 밀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는 산불이 발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덥고 건조한 조건을 악화시켰다. 과학자들은 최근 미국 서

부와 캐나다에서 산불로 그을린 수백만 에이커(대략 사우스 캐롤라이나 크기의 지역)가 세계 최대의 화석 연료 및 시멘트 회사의 탄소 오염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들이 타면 연기는 수천 마일을 하류로 이동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IQAir North America의 CEO인 Glory Dolphin Hammes는 이전에 CNN에 “산불은 지구 온난화 문제이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고 있는 기후 변화와 매우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시론

문제는 맥도널드가 아니었네...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테네시주 내슈빌에 사는 케빈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방식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했습니다. 그 방법은 100일 동안 매일 맥도널드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만 먹는 것입니다. 현재 57세인 케빈은 지난 2월에 자신의 체중이 238파운드(108kg)인 과체중 상태로 체중감량에 도전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맥도널드 음식만 먹은 결과 놀랍게도 그의 체중은 58.5 파운드가 줄었습니다.

하루 3기씩 100일 동안 매장은 들리지 않고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신이 주문한 음식은 절반만 먹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버리또 1개, 해시브라운 반 개 혹은 머핀 반 개를 먹고 나머지는 두었다가 점심 때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때에는 빅맥과 프렌치프라이 그리고 애플파이를 주문하여 받은 먹고 절반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먹는 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체중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모두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무려 65 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남편 케빈이 맥도널드 다이어트를 한 지 40일 정도 지났을 때 옆에서 체중의 변화를 지켜보던 아내도 맥도널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65일이 지났을 때 아내 역시 체중이 18파운드 줄어든 것입니다.

케빈 외에도 맥도널드 음식만 먹으면서 체중감량을 시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2014년 오하이오주의 고등학교 현직 과학교사가 FDA 안내지침에 따라 하루 2,000칼로리에 맞춰 식사를 한 결과 90일간 35파운드 정도를 감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 영양사들의 충고는 체중감량은 가능하지만, 몸에 필수적인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되면 인간의 뇌가 그 필수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공복감을 계속적으로 보내게 되고 그 결과 더 많은 음식을 취하게 됨으로 감량된 체중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문제는 맥도널드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식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에 빠지는 것 중의 하나가 교회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웅장한 공간과 그 속에서 이뤄지는 수백 명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조차도 그런 예배는 결코 지나가시거나 무시할 수 없으며 그래서 예배자들은 자신이 드린 예배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기도제목이 저절로 응답받을 것 같은 생각이 빠집니다. 반면에 변변한 피아노도 오르간도 음향시스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 천장의 뜰새로는 하늘마저 등성등성 보이는 그런 초라한 곳에서의 예배는 대수롭지 않게 보려는 경향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맥도널드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신앙인들의 아름다움을 세워주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진실성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긴다면 그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며, 살렘.

hankschoi@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진욱 주일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12-25 Clinton St, White Plains, NY 115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2-2584, www.ikcb.org 14 Gres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갯세마미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p> <p>Tel: (516)520-2004, www.gonyk.com 2408 59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아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 (Fax: 경음), (917)73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양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준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35-24 Union St, Flushing, NY 11354</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p> <p>Tel: (516)387-9940, 9942(E)M, www.cpcny.org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학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 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화, 목, 토요일 오후 8:00</p> <p>Tel: (718)706-0100, www.nyopc.org 43-23 37th, Ave Long Island City, NY 11101</p>	<h4>뉴욕효신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광선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15 청년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55 (화-토)</p> <p>Tel: (718)762-2525, 5756, www.hyooshin.org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0 (화-금) 금요기도: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늘기쁜교회</h4> <p>담임목사: 김홍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p> <p>Tel: (718)359-0991, www.joyfulchurch.org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p>	<h4>베이스айд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영아예배(EM): 1부 오전 11:30 2부 오후 2:00 주일가나안예배: 오후 6:00 수요가나안예배: 오후 6:00 새 생 예배: 오전 5:45 견고안락발사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58, www.nybasidchurch.com/V2/ 45-62 21St, Bayside, NY 1136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새벽별주님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 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5</p>	<h4>은누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준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annure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주일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a.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 목, 토, 일)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새벽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둘째(목)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포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ívo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52)33-3507-4111, hanikr@hanmail.net Rua Joaquim Fiza, 281 Cantuc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제일교회</h4> <p>담임목사: 김성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 (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유문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L 1R7</p>	<h4>하와이 행복안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un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 (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근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하누엘 신학대학 교수</p> <p>Tel: (52)33-3507-4111, hani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신학교 졸업 시즌에 강력하게 제안한다!

미국의 각급 학교의 졸업시즌이 한창이다. 북미주에 산재한 한인 신학교들도 역시 그동안 정성껏 양성해 온 신학생들을 배출하는 보람된 시즌을 맞고 있다. 신학교의 졸업생은 2년 후에는 대부분이 목사로 임직을 받아 목양 최전선에서 사역해야 할 인재들이기에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이제 곧 한 사람 신학교 졸업생에게 맡겨질 영적인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고 막중한 것인가! 신학교 졸업

생 한 사람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한 교회가 탄생하는 셈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신학교 지망생들이 급감하고 있다는 슬픈 소식들이 우리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신학생 전도사들이 이력서를 보낸 후에 사역할 기회가 되면 자기를 불러 달라는 청원서가 서너 명씩 쌓였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날은 지금 몇 년째 교육 전도사(신학생) 한 사람을 구하기가 여간 어렵게 되

었다. 미국 신학교 자체가 신학생들이 급감하면서 재정적인 곤란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캠퍼스들을 매각 처분하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정된 교단의 신학교 입학문이 얼마나 좁은 문이었는지... 재수는 다반사였고 심지어는 4수를 해야 입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겨우 미달 사태를 면할 만큼의 신학 지망생들이 급감 현상을 드러냈다

고 한다. 이런 암울한 소식이 듣고 있어버리기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만 해도 벌써 몇 해 전부터 주일학교를 지도할 신학생 전도사나 졸업생을 구하지 못한 채로 지나고 있다. 이달 말이면 또 중고등부 교육 목사가 타 교회 임직으로 전출을 한다고 하는데 후임을 구할 자신이 없다. 영예권 목사도 일년 가까이 공석중이다. 공급과 수요의 부조화를 이루면서 지역 교회들이 차세대 교육 목회자들을 구하는 것이 이제는 하늘의 별 따기 시대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신학교 지망생이 소수화되는 추세로 봐서 더 이상 신학생 교육 전도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필자는 각 지교회 담임 목회자들에게 두 가지 주일학교 지도자 양성과 목사 후보생 발굴에 관한 추진책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더 이상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를 신학생 중에서 찾지 말고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양육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주일학교를 지도했던 수많은 신학생 교육 전도사들을 분석해 보면 그들은 대부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해 본 경험도 없이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이 대다수였다. 게다가 자녀

를 양육해 보지도 못한 신학교이 대다수였다. 그들은 신분이 신학생이라서 지역 교회들이 전도사님! 호칭으로 불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교회 교육의 일선 경험이 거의 없는 전도사들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나마도 찾지도, 구할 수도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현재 주일학교에서 헌신하고 봉사는 베테랑 교사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저들은 10년~20년씩 주일학교를 섬겨온 청지기들이다. 그들 중에서 바람직한 은사와 리더 자질을 겸비한 일군들을 발굴해서 주일학교 설교자와 리더십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서 사역자로, 간사(Step)로 세우기를 제안하고 싶다. 이런 리더들은 대부분이 자녀를 직접 출산했고 양육해 온 강력한 책임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모들이다. 이런 자질 위에 기본적인 성경 해석학, 설교학, 리더십과 영성 훈련만 가미하면 아주 탁월한 주일학교 목회자로 양육할 수 있다. 각 지 교회 담임목사가 일반 교우들 목양도 귀하지만 이는 제 직접 주일학교 지도자 양육에 집중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이런 지도자들을 현직 신학교에 온라인 학습이라도 한 과목씩이라도 훈련 받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서 일군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제안은 모든 신학교 지망생들이 사라지는 현상을 안타깝게만 여기지 말고 이제라도 모든 지역 교회들이 2~3년에 한 명씩이라도 목사 후보생을 발굴 양육해서 신학교에 위탁 교육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고 싶다. 총회 산하 600여 개의 지교회가 2-3년에 한 명씩만 목사 후보생을 배출한다면 매년 최소한 100명 이상의 목사 후보생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매년 100명씩만 6년을 지속한다면 목사 후보생 고갈 상태를 금세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타결책이 있어도 결정적인 약점은 아무도, 어느 교회도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거두기만 하려한다면 마치 빈 들에서 추수하겠다는 여처구니없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신학교 졸업생이 곧 미래의 교회라면, 신학생 고갈 상태나 목사 후보생 부재 현상은 곧 미래 교회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이단 종파들의 먹잇감으로 넘어갈 것이 뻔한 사실로 와닿는데 이제라도 모든 교회가 각성하고 목사 후보생들을 양육하고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이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박병섭 목사 (뉴욕선교로교회)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알신 상을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일삼다가 예루살렘 성전마저 폐쇄해 버린 아하스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등극하여 29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유다에 대개혁을 시작하여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먼저 온 땅에 널려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선왕들이 멈추었던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왕하 18:5-8). 히스기야 왕은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으로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를 구하기 위해 회개운동을 일으켜 성전에서 친히 기도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앗수르 군대를 대신 쳐서 185,000의 대군을 일시에 멸망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무서운 질병으로 죽음이 선고되는 절망이 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왜 병이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결과로 병이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대하 24:18-25; 26:16-21). 모든 경우를 죄와 관련시킬 수는 없지만, 히스기야의 경우는 분명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그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던 때에 기록한 글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사 38:17)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병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신 것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15-16절에 보면, 산헤립이 침입하여

온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을 때, 왕궁과 성전 곳간의 보물들과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 모두 벗겨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왕하 18:15-16). 이러한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까지 모두 바치고 항복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러한 행동을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는 치유의 약속과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집을 정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나라의 왕권을 넘겨주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 비극적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나라의 왕권을 넘겨주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 비극적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나라의 왕권을 넘겨주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상황에서 이 비극적인 메시지를 들음으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 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아보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금식하며 드리는 눈물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와 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정을 토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기도하되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버리고 어린이와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사야 38: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

며 내 눈이 쇠하도록..."(사 38:14) 믿음의 척도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느냐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애달픈 심정이 없습니다. 애꿎은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압박감 나루터에서 환도 빼가 부러지도록 기도했던 야곱이 가졌던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는 세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없이 어찌 인생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기도의 애절함이 없이 어찌 상황을 뒤바꿀 수 있었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에 두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을 찢듯이 회개의 눈물로 무릎을 적셨습니다. 결국, 그의 간절한 기도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낮게 하리니 내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십 오 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습니다. 앞이 캄캄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 뿌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에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듣고 응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ackbspark@gmail.com

히스기야의 기도 - 위기에서 기도하라

열왕기하 20:1-6

오히려 포기 대신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뜻을 펼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상황을 바꾸어주어도 사용하십니다. 결국, 그의 간절한 기도는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여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하며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직 벽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 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에만 초점을 두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때 자기를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하나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절 상반 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기도하되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절박한 때에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물과 잘못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과 동맹을 맺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허물과 죄를 깨닫게 되어 곧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토로하는 간절한

교회관(觀)

교회를 생각하는 관점이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의 내용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이 교회가 평생 내가 섬길 교회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음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도 이 사람과 내가 살수도 있고 언제라도 헤어질 수도 있는 관계, 깊이 사랑하지 않고도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는 관계, 그런 관계들은 서로의 인생에 불행하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항상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좋을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내 운명이다, 평생 생명 바쳐 사랑할 사람이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약속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면, 그 열매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된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사랑

에 대한 관점은 이 시대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다. 땅위의 지상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내용 좋거든 마디 마디에 간증의 역사와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본다. 모든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참되고 바르게 세워지는 과정들에는 반드시 몸을 드려 교회를 사랑했던 아름다운 성도들의 간증의 역사가 부지가수로 존재함을 본다.

교회는 회복과 축복의 소망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다. 이민 생활의 갈등 때문에 아내 되시는 분이 가출을 했다고 한다. 남편 되는 분은 모든 사업과 일들을 다 제쳐놓고, 원통함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내를 찾기 위해 온 미주의 도시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중부의 어느 도시를 찾아갔는데, 주일이 되어 예배처소를 찾다가 초막같이 허

회복은 교회에서 예배부터

예전, 한국 교회에는 이러한 간증들이 무수히 많았다. 서울 여의도에 순복음 교회가 지어지기 전, 그 시작은 시대문의 천막 교회였다. 그 천막에서 하루 여섯 번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성도들 대부분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사업에 실패한 실업자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해 외치는 조용기 목사도 역시나 폐병 환자였다. 폐병으로 인해 설교 중에 피를 토하면서 '되지도 않은 그런 일 다 내려놓고 예배부터 드리라'고 피를 토하듯이 소리쳤다고 한다. 실제, 병으로 인해 피를 쏟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설교 말씀에 사람들이 무리와 같이 몰려들었는데, 대부분이 삶에서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있던 중에도 은혜받아 헌금하며, 마치 성막을 건축하려고 예물을 드릴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

기도의 손을 모으는데 손에 반지가 잡히더라는 것이다. 그때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들고 온 것 뭐 하러 다시 들고 가나?'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풀어서 주님께 내어 드렸다고 한다. 또 집에 금수저 은수저가 있는데, '그냥두면 녹쓰는데 교회 기동하나 세우지?' 그런 음성도 들리더라는 것이다. 금수저 은수저가 녹슬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나 워낙 은혜가 넘치다 보니, 땅에 쌓아둔 재물에는 좀과 동물이 해한다는 말을 성령께서 불붙게 하심으로 그런 결단도 생기게 된 것이다.

어느 교회가 건축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성도 중에 교회 근처에 땅을 가진 믿음 좋은 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는 자꾸만 차들이 땅에 들어와서 지나 밟고 가길래 화가 조금 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화가 오를 때,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 749-0577
TLspc0316@gmail.com

Q: 저는 미국에 와서 평신도로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소명을 받고 이번에 목회학 석사 과정의 3년 신학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후에는 목사가 될 것인데 가는 길이 어려움이 많은 길인데 특히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 LA에서 Hwang 전도사가

“가나 혼인 잔치처럼 맹물같은 인간을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가치있는 인간으로 변화”

A: 먼저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사명자의 길은 거칠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된 길이요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목회 리더십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로 어려운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사람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로마서 1장에 나오듯이 온갖 죄악된 요소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반역과 시기과 질투와 불순종과 교만과 폭력과 음모와 무례함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 사역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는 가나 혼인 잔치처럼 맹물같은 인간을 극상품 포도주와 같이 가치있는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역입니다. “Mission impossible” 하게 보이는 사역이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피긴슨 이란 목사는 목회 소명이란 책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려면 2가지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성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온갖 죄와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여 거룩한 인격을 유지하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눈으로 보는 영상시대이기에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며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보는 것 즉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하고 늘 자신을 영적 불결에서 깨끗케 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인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든 면에 깨끗해야 합니다. 돈문제에 깨끗하고 말에 신용이 있어야 하고 여성 문제에도 일절 깨끗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그래함은 자기 차 오른쪽에 아내를 태우고 다니는 태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프랜시스도 백성의 통치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청결한 눈을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말씀연구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말씀묵상과 연구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알파한 연구는 알파한 설교밖에 안 나옵니다. 버가모교회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했는데 성도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먹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연구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두 기독교 지도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가가와 도요이찌이고 한 사람은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동경에서 살았는데 자신의 6평짜리 다다미방에 청년들을 모아 놓고 수 십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다른 이들에게 강의나 일을 부탁받을 때는 나는 성경공부를 해서 젊은 영혼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강의나 일로 내 시간을 빼앗지 말아주시십시오”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우찌무라 간조는 27가지 일 즉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성경을 가르치는 일 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를 많이 키워내고 일본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옹고 그름에 대해 목소리 예배의 온전함에서 시작되며 깊어지고 넓어지고 끝이 난다. 눈습이 초라하고 연약해도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겨운 헌신이 있었기에,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오늘날 언제 어디서나 손쉬운 정보습득 능력으로 신앙의 지식은 많아졌지만,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하지는 못하는 기복수 신앙들이 많아졌다. 세련된 것을 찾고 구하지만, 그럴수록 신앙은 세속적이며 천박해짐을 기억해야한다.

교회중심의 영성회복

기독교 신앙의 영성은 교회와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교회중심, 신앙과 삶

-교회, 영성, 회복과 축복-

하고 섬기는 내 교회는 바로 이 교회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복과 열매가 있음을 보는 것이다. 작은 허물과 연약함에 걸고 교회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 사람의 교회에 대한 관점은 그의 신앙생활 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끼리는 뭔가 모르게 신앙의 좋은 냄새가 있음을 본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분들을 만나면 은혜가 된다. 혼자 성경 읽는 것이 더 마음에 힘이 된다는 분들을 보면 절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것을 느낀다.

교회는 참된 영적구원

성도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신령한 것, 영적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또 많이 간증한다. 이 땅의 일이 아닌 조금은 다른 차원의 세상 이야기로 들려진다. 그럴 때 마다 영적유익을 위해 강조하는 것이 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속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현실계와 물질계속에 구원될 때 의미가 있어진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육신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땅 어디에서 그런 신앙의 영적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삶의 다양한 타전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이 땅 물질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이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처치, AI 목사들을 유행처럼 말하는 시대에는 의도적 선명성을 더욱 강조하면서까지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와 더불어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교회

름한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를 기다리신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분노와 원통함, 억울함과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은 만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배시간에 아내를 찾으려고 들고 온 돈과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교회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허름했던 교회는 그 돈이 씨앗이 되어, 새롭게 교회를 짓고 완공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훗날 본인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어 한번 더 교회를 건축완공까지 했다고 한다. 끝이 좋은 인생, 시시한 복수극으로 끝날 인생이 주님안에서, 교회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된 것이다.

삶의 원통함과 분노와 상처들도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오고, 그곳에서 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마음의 모든 어두운 장막들은 물러가고 마침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본다. 주의 전에서 예배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다. 마음의 어둠이 물러갈만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므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채워주시심을 경험하게 된다. 회복이며, 축복이다.

회복을 원하는가? 주의 몸된 교회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로 몸을 움직여 나아가야 한다. 주님의 교회로 나아오지 않고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견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의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주의 전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회복과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해 그만 가져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자원하여 드리면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뭐가 남아서 드렸겠는가? 남아서, 남으니까 드린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렵듯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전부를 드린 것이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들 천막교회 나아왔던 이들이, 믿음으로 영적인 힘을 내고, 하나님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기업가들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저들이 순복음 실업인회를 만들어 목사님의 목회와 선교사역을 뒷받침하며,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왔지만, 광야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부족해서 넉넉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저들이 지나질 정도로 자원하여 드렸을 때, 저들의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셨다.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광야의 길이었지만, 저들의 모든 행로를 친히 책임져 주신 것이다.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친히 인간이 만든 그 천막 속에 거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므로, 열방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장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다.

교회를 사랑, 교회앞에 헌신

이런 역사는 어느 특정한 민족과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강남의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짓기 위해 성회를 하는데, 은혜를 받고

이다. '자네 땅을 차가 자꾸 밟고 지나가는데, 거기 교회 지으면 못 밟을텐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이다. 그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헌신한 그 흔적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고는 마침내 은혜의 대를 이어가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방주가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 믿음과 헌신

오늘날, 가급적 교회를 간소화시키고, 주일 성수의 탈 자유화를 통해서까지도 교회를 선전하는 시대가 되었다. 예배와 신앙의 삶을 Non-Stop Service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치우도록 선전한다. 이러한 초특급 서비스 시대에 교회건축과 관련된 위의 간증들을 말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 하물며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대부분 '시대를 못 읽는 꼴통(?)목사'의 생각으로 치부할 것 같다.

적당히 교회와 목사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 한마디를 하면 꽤 괜찮은 교회와 목사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시대에 무슨 교회 짓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자신의 일보다는 교회를 더 우선하며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 지금 이 세대가 이만큼 자라왔고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잊으면 배운답덕한 것 아니겠는가? 목회라는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마지막 최종결정권자는 주님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못났다고 하여도, 그 부모없이 세상이 생명의 빛을 볼 수도 없었고, 스스로 지저귀 같아가며 자라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가운데서 신앙의 기초를 배웠기에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함께 보는 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자녀 휴가를 다녀오는 가족들도 상당히 많다. 대한민국의 캠핑인구는 2010년 초반부터 꾸준히 늘어났다

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인구와 인기가 모든 세대에 걸쳐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쿼린틴으로 인한 공간의 제한은 모든 사람에게 캠핑의 욕구를 늘리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내 물건만으로 온전히 의식을 해결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여행이라는 생각에 캠핑인구는 더욱 늘어났고 그 사이 백신접종과 예방법이 발달되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여행에 대한 규제도 많이 풀렸지만 캠핑의 열기는 그대로이다. 무엇이든 클릭과 터치 한번으로 해결되는 빠르고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디지털시대에 캠핑은 무엇 하나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

으면 되지 않는 불편한 아날로그시대의 여행방식인데 말이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캠핑산업현황 통계조사에 의하면 국내 캠핑 이용자들이 캠핑을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휴식을 위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 시 주요활동으로는 모닥불놀이와 별보기, 바비큐, 휴식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사를 통한 캠핑의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 놀이와 별을 보는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기사를 읽으며 나의 경험을 떠올리며 웃음이 나왔다. 우리가

족도 자주는 아니지만 캠핑을 다닌다. 처음 캠핑을 갔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모닥불을 피어 머시멜로우를 구워 먹고 밤하늘 가득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좋아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흐린 날이 아니라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올려보면 보이는 수많은 별을 보며 우와~우와~ 소리 지르며 감동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없다.

다가오는 여름! 해외나 타주의 유명한 여행지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풀베레 소리 들으며 함께 별을 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별 하나'가 되어주길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사랑하는 별 하나

이성선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쫓아 될 수 있을까. 세상일이 괴로워 쓸쓸이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화안히 안기어놓을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며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많은 눈빛으로 나를 찾아올까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songjeo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美 6년 만에 유네스코 복귀... 中 "밀린 회비 댈리 내"

중국 6년 만에 유네스코(UNESCO)로 복귀하는 미국을 향해 "다년간 밀린 회비를 최대한 빠르게 전액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유네스코 복귀에 대해 "국제기구 가입을 공원 산책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책임 있는 국가로서 감당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오드리 아줄레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12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국이 오는 7월 재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7년 10월에 유네스코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탈퇴했다. 유네스코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부정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체제로 바뀐 미국은 6년 만에 유네스코 복귀를 예고했다. 유네스코 재가입 과정에서 납부를 유보한 분담금(회비)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 있다. AP통신은 미국의 미납 분담금 규모를 6억 달러(약 7600억원)로 추산했다.

日정부 첫 우주안보구상...중러 대항 방위목적, 군사능력 확대어나

일본이 우주안보 정책의 첫 지침인 '우주안보구상'을 공개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우주군비 경쟁에 대항한다는 취지지만 군사 능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우주안보구상을 처음으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주안보구상은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가 개정한 외교·안보 기본지침인 국가안보전략에서 우주·사이버 능력을 향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10년 동안 방위 목적의 우주 이용 확대를 위한 지침이 된다. 기

시다 후미오 총리는 "우주 공간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용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주안보구상에서 우주 공간에서의 위기감을 표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미국과 유럽의 민간위성 데이터가 군사작전에 이용됐으며 "우주 이용이 군사적 우위성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수집위성을 대폭 늘리고 위성 공격능력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도 있다"며 중국을 예들려 겨냥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둔 탐지·추적 등 기술개발을 미국과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미국·영국·호주·캐나다의 '연합우주운용센터' 참여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 센터는 군사위성이나 상업위성에 대한 방해나 공격 등을 함께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 방위성과 자위대가 다른 국가의 지휘통제와 정보통신을 방해하는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우주안보구상에 명시했다.

교도통신은 "우주의 군사 이용을 활발히 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할 목적이지만 군민 일체화를 가속하는 정부 방침에 야당과 학계에서는 우려도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AI 열풍'에 엘리슨 오라클 회장, 빌 게이츠 제치고 '세계 4위 부자'

인공지능(AI) 열풍이 뜨거워 가운데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주가가 급등하면서 창업자 래리 엘리슨(78)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4위 부자가 됐다. 12일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BBI)에 따르면 엘리슨 회장이 순 자산 1298억 달러(167조원)를 기록하며 게이츠의 순 자산 1291억 달러를 제쳤다. 블룸버그통신은 "엘리슨 회장의 순 자산이 게이츠를 뛰어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BBI 순위가 5위를 넘어선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의 주가 상승세 등에 힘입어 엘리슨 회장의 순 자산은 올해 38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오라클 주식이며 110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지분도 포함돼 있다. 반면 게이츠는 여러 비영리 단체 기부 등으로 올해 재산이 199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날 오라클 주가는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기술주의 동반 상승세에 힘입어 6%

올라 사상 최고치인 116.43달러를 기록했다. 오라클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2% 상승했다. 오라클은 이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이전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138억4000만 달러(약 17조77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났다고 밝혔다.

나토, 1만명 동원 방공훈련...러 겨냥 '역지력' 과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12일(현지시간)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방공훈련에 돌입했다. 우크라이나의 대만적 작전에 발맞춰 러시아에 단결된 역지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13일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토의 연합 군사훈련 '에어 디펜드 23'이 전날 유럽 영공에서 시작했다. 독일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는 최근에 나토에 가입한 핀란드를 포함해 25개 회원국과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스웨덴이 참여하고 일본이 참관국(옵서버)으로 함께한다. 훈련은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2일 동안 진행되며, 군용기 250여대와 장병 1만명이 동원된다. 미군은 110대 이상의 비행기와 주 방위군 소속 군인 수천명을 파견했다. 나토는 각국 항공기 사이 원활한 통신이 이뤄지는 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첫날에는 독일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얼마나 빠르게 목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을 이끄는 영국 케르르르르 독일 루프트바페(공군) 참모총장은 첫날 훈련을 마친 뒤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나토의 단결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마르 삼각동맹'을 구성하는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3개국 정상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대만적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무기와 탄약, 무장차량, 보급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지원을 수일, 수주에 걸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영상 연설에서 "전투는 치열하지만 우리는 전진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인 중부 크리비리흐에 13일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벌였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러시아가 이 지역 아파트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트럼프 법원 출두 앞두고 극우단체 집결 계

획...美 긴장 고조

기밀문건 불법반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3일 연방법원 출두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저항하라"고 촉구했고, 이에 맞춰 극우 극단주의 단체 등도 집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일부 친(親)트럼프 추종자들은 기소를 비난하며 총기 사용 위협까지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선거 전략이었던 로저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기소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저항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기소에 대한 항의를 촉구한 것이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법원에 출두하는) 화요일 마이애미에서 만나자"고 적었고, 한 사용자는 "미국 국민에 대한 전쟁 선언이다. 워싱턴DC에서 부패를 불태울 때"라고 반응했다.

미 당국은 친 트럼프 단체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법 집행 당국은 잠재적 혼란에 대비해 경찰 휴가를 금지했고, 사복 경찰에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제복을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P가 입수한 경찰 내부 문서에는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마이애미 지부가 주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회가 언급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내셔널 도얼' 리조트 인근에도 지지자 집회 예정됐다. 친 트럼프 인종주의 도발적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측 인사인 카리 레이크 전 폭스뉴스 앵커는 조지아 주 공화당 전 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잡으려면 나와 7500만명의 미국인을 거쳐야 한다"며 "우리 대부분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전미총기협회(NRA) 카드 소지자"라고 말했다. 레이크는 또 이번 기소를 '불법'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했다. 폭력 위협을 암시한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 이후 또다시 지지 결집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CBS방송이 여론조사업체 유거브와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공화당 대선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23% 지지를 얻어 격차가 38%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지난날 조사에서 두 사람은 각각 58%, 22% 지지를 받았다.

이번 기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그의 지지층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0%는 "더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고, 56%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NLL 탈북 가족의 증언..

(2면에서 계속)

한국과 인접한 북한 해안가 주변에는 한국산 물품들이 조류를 타고 떠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엔 비닐이나 플라스틱, 고무,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해안가 주민들은 이 한국산 물품들을 수거해 "매일 자전거로 7-8km를 이동해 재활용 공장에 넘기는 실정"이라고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전했다.

한류 유입에 처벌 강화

북한은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나 노래가 빠르게 확산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류 유입이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지난해 여름 20대 초반 남성이 한국 영화와 노래들을 USB에 저장하고 이를 시청, 유포하던 중 불법처럼 이른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공개 총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지난 2020년 12월 북한 당국이 한류 등 모든 외부 문화와 종교, 자본주의적 생활방식 등 당국의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과 요소를 뿌리뽑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보던 주민이 처형됐다는 주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통일부가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양강도에

서는 한 남성이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유포하다 불법처럼 공개 총살됐고, 앞서 지난 2019년에는 지인들에게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공유한 사람이 노동교화형 4년에 처했다.

'인육 취식 소문 들었다'

'최근 북한에서 인육 취식 소문이 돌고 있다'는 증언과 관련, 이는 '장기간 코로나 봉쇄 조치'를 단행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BBC 코리아에 "지난 1995년 '고난의 행군' 당시 약 4년 동안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당시에도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프면 뭐든지 먹는

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최근 그런 소문이 다시 나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중국과의 물자 거래를 통해 최소한의 식량 공급을 해왔지만 올해까지 3년에 걸친 장기간 코로나 봉쇄 조치로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내부적인 코로나 봉쇄 조치로 자체적인 식량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며 따라 북한의 식량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씨 형제 가족들은 정부 조사 과정에서 "올해 초 북한의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식량난이 극심해졌다"고도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달러 사용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북한 장마당에서는 북한 화

폐보다 달러가 더 활발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9년 당국의 화폐개혁 실패 후, 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사라지면서 시장에서 달러와 위안화 거래가 견잡을 수 없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달러 사용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1달러 환율은 평양 기준 8000원 대를 기록하고 있고, 쌀값은 1kg에 5700원에 달한다. 북한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5000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 달 월급으로 쌀 1kg도 사지 못하는 셈이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굶주린 일부 북한 주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인육을 동물 고기로 속여 판다는 등의 소문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한 상태일 때 터

져 나오곤 했다. 이러한 소문은 지난 2011년 6월 공개된 북한 인민보안부의 문건에서도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북한 경비원이 동료의 인육을 먹고, 나머지는 양고기로 속여 팔던 중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출신으로 국정원 산하 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김광진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몇백만 명이 굶어 죽는 것으로 알려진 1996년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시 만경대구역 장마당에서 한 시민이 인육을 내다 팔다가 당국에 붙잡혀 그 사람은 물론 관련 친인척까지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일부 지역에서 인육 취식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71. 이정두

이정두는 1864년 1월 22일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후 '상수구박'(Sang Soo Koo Pak)에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다. 그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40세가 되던 1904년 5월 8일에 같은 나이의 부인과 함께 8살 된 아들 종철과 3살 된 아들 종환을 데리고 이민선 시베리아호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가 하와이로 올 때는 자기 이름을 Ye Chung Doo로 하였는데 하와이로 이주한 후 Lee Chung Doo로 표기했다. 하와이 이주 당시에는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와이 힐로 한인감리교회

이정두가 하와이에 온 후 농장 노동자로 살았을 것인데 언제 힐로로 이주한 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920년 이전에 이주하였을 것이고, 힐로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고 본다. 1919년에는 김이제 목사가 본 교회에 파송받았다.

이정두는 하와이로 이주한 지 15년이 되고, 56세가 되던 1920년 2월에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모인 제15차 하와이 연회에서 하와이섬 힐로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의 이름이 Chung Do Lee로 표기된 것은 오타일 것이다. 그해 파송된 목사는 이관목이었고, 그는 힐로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하와이주 한인감리교회까지 맡은 순회 목사였으며, 장로 목사 곧 정회원인 된 지 5년이 된 목사였다. 그리고 그해 파송된 전도사는 없었고, 파송된 권사는 그뿐이었다. 그러므로 이관목 목사가 순회 목사였으므로 이정두가 권사이긴 했지만, 힐로 한인감리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파송된 그달에 보고된 두 한인교회의 현황은 아래와 같았

다. 세례 교인 2명, 어린이 세례 교인 3명, 입교 교인 4명, 학습 교인 7명이었다. 주일 학교에는 7명의 교사와 직원이 있었고 등록된 학생은 42명이었다. 웨워스 청년회에는 고등부가 10명, 중등부가 9명이 등록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 헌금으로 하와이 한인감리교회는 5달러를 하였고, 힐로 한인감리교회는 64달러를 헌금하였다. 힐로 한인감리교회는 1,900달러에 해당하는 예배당이 있었고, 건물 유지비로 23달러를 썼다. 위의 교인 현황에서 따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힐로 한인감리교회 교인 수가 더 많았을 것이다.

이후 1927년까지 이정두의 이름이 하와이 선교연회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1927년까지 계속 권사로 파송된 것으로 보인다.

1928년 2월의 제23차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이정두는 심상헌과 함께 힐로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 이관목 목사의 지도하에 사역하였다. 그런데 1928년 2월의 하와이 선교연회에서 하와이 선교연회의 '내지선교/교회확장부의 부장인 일본인 T. 고무로 목사는 하와이섬 힐로에 거주하는 힐로 한인감리교회가 신축 예배당 건축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고했는데, 신축 예배당이 필요하기로는 가와이섬의 기가하 필립 교회와 같은 형편이었다. 그런데 힐로 한인감리교회는 예배당과 사택을 그해에 건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교회 예배당 건물과 사택 타는 24,000달러에 해당했고, 사택과 사택 터가 8,500달러에 해당했다.

1928년 2월 보고와 이정두가 1년 동안 사역한 1929년 2월의 보고를 비교할 때 힐로 한인감리교회의 형편은 아래와 같았다. 예배를 드린 곳은 세 곳으로 같았고, 한 명이 줄어들어 2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동

일하게 없었고, 어린이 세례 교인은 2명이 늘어 19명이었으며, 입교 교인은 3명이 늘어 78명, 학습 교인이 64명이 줄어 19명이었는데 이 중 18명이 지난 1년 동안에 학습을 받았다. 그런데 힐로에 거주하지 않은 교인이 3명이 늘어 15명이었고, 거주하는 교인은 27명이 늘어 101명이었다. 지난 해와는 달리 교인 2명이 별세했다. 주일 학교는 한 곳이 줄어 세 곳에서 운영되었고, 동일하게 19명의 직원과 교사가 있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20명이 늘어 320명이었고, 매주 평균 출석한 자는 10명이 늘어 290명이었고, 주일 학교를 위해 123달러가 늘어 310달러를 후원했다. 웨워스 고등부 학생은 2명이 줄어 53명이었지만, 웨워스 중등부 학생은 하나도 없었는데 26명이 되었다.

2년에 걸쳐 하와이 연회가 1년에 본 교회에 240달러를 후원하였다. 교회 비용으로 17달러가 적은 180달러를 사용했으며, 세계봉사헌금으로 동일하게 150달러를 헌금했고, 작년에 없었던 240달러를 선교사 보조회에 헌금했다.

이정두는 김봉서와 심상헌과 함께 1929년 3월에 개최한 하와이 선교연회 제24차 회의에서 힐로 감리교회 전도사로 재차 파송을 받았다. 그해 힐로 지방 순회 목사는 작년에 이어 이관목이었다. 1929년 2월 보고와 이정두가 1년 동안 사역한 1930년 2월의 보고를 비교할 때 힐로 한인감리교회의 형편은 아래와 같았다. 예배를 드린 곳은 세 곳으로 같았고, 한 명이 늘어 전도사가 3명이었고, 세례 교인은 동일하게 없었고, 어린이 세례



1928년에 신축한 힐로 한인감리교회

교인은 5명이 줄어 14명이었고, 입교 교인은 12명이 늘어 90명이었고, 학습 교인이 75명이 늘어 94명이었는데 이 중 31명이 지난 1년 동안에 학습을 받았다. 그런데 힐로에 거주하는 교인은 24명이 줄어 76명이었다. 주일 학교는 1곳이 줄어 2곳에서 운영되었고, 10명이 줄어 9명의 직원과 교사가 있었으며, 등록된 학생은 135명이 줄어 185명이었고, 매주 평균 출석한 자는 165명이 줄어 125명이었고, 주일학교를 위해 258달러가 줄어 달러를 후원했다. 웨워스 고등부 학생은 26명이 줄어 27명이었지만, 웨워스 중등부 학생은 12명이 줄어 14명이 되었다.

2년에 걸쳐 하와이 연회가 1년에 본 교회에 240달러를 후원하였다. 교회 비용으로 60달러가 적은 180달러를 사용했으며, 세계봉사헌금으로 동일하게 150달러를 헌금했고, 사택 임대료로 270달러를 지불했고, 연금과 구제비로 11달러를 지급했고, 선교사 보조비로 510달러를 헌금했다.

1930년 2월에 모인 제25차 하와이 연회에 보고된 힐로 한인감리교회 현황에 전도사가 3명이 있었다고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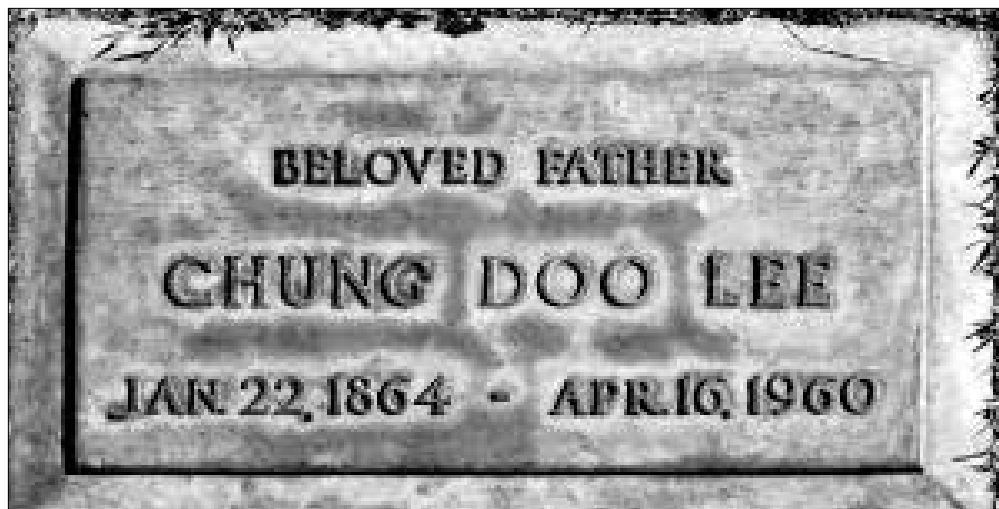
어 있지만 이정두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아 그가 전도사직을 계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30년이면 그가 66세이므로 전도사로 사역하기에는 나이가 많기도 하다. 그런데 1931년 이후에도 3명의 전도사가 파송되었지만, 그의 이름이 없다. 그는 1920년 이후 1929년까지 9년간 권사와 전도사로 사역한 것으로 보인다.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구두제조업에 관여하면서 이정두는 힐로에서 호놀룰루로 이주한 것 같다. 호놀룰루에 이주한 후 그가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하였을 것이다. 본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 한인연합감리교회다.

이정두는 수십 년을 호놀룰루에서 구두제조업을 열고 종업원을 두고 관리하면서 생활했다. 그는 1960년 4월 16일에 9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아후섬의 호놀룰루에 있는 누아누 기념공원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후 7: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토)</p> <p>telgusa@yahoo.com / www.ls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학교: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c.org 15411 W.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310)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세례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pcsa.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626)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주일학교: 오후 1:30(수-금), 오후 7:30 일일예배: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iblehal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2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회</p> <p>담임목사: 김장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 388-1827 / www.wmca.org / worldmissionchurch32@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e-Fe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말) Clubhouse 3 room 1(수)</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협동목사)</p> <p>상담사역: (월-금)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밖 신자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알콜사역 4. 네트워킹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영아예배: 오후 1:30(수-금), 3:05(월-토) 24시간 온/오프</p> <p>Tel: (714)446-6202, www.grae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학교: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방학: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예배: "어장권이 임어제네"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8)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2. 하나님을 반대하는 많은 트집들에 대한 답변

만일 세상의 논쟁자들이 자기들의 멸망 원인을 찾고 또한 간접적으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죄와 멸망을 피하기 위해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지혜를 더 유익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적 안전을 그만큼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죄와 같은 추악한 과물이 우리 안에 있고 형벌과 같은 무서운 것이 우리 위에 기다리고 있으며, 지옥과 같이 두려운 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가장 일차적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편향적인 재판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보다 무한히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 자기의 첫 번째 조상을 닮았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어 나이다"(창 3:12,13). 이 말은 은근히 하나님이 원인이셨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지성으로는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의지로서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께서 내 앞에 두신 자들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공격하도록 허용한 유혹들이 나를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선생님의 교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전지 하심에 절대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것은 인간의 교만한 자기 속임수의 열매이다.

[반대 1]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키기 전까지는 우리 스스로는 회심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답변] 두 종류의 은혜를 잘 구분하라.

하나님께서서 두 종류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 첫째는 회심의 은혜요, 둘째는 구원의 은혜이다. 구원의 은혜는 원하고 행하는 자에게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회심의 은혜는 그들의 원하지 않던 것을 원하게 하는 것이다. 비록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만한 가치가 없지만, 여러분의 무의지 자체이며, 이것은 여러분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만든다. 여러분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되, 그것을 무시하거나 반대하지 말라.

[반대 2]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답변]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 밖의 문제이지만 다음 사항을 고려하라.

의지는 자유 결정 기관이다. 그러나 의지는 타락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이라는 슬픈 경험에 의해 우리의 의지에 선과 도덕적 자유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형벌을 받는 것은 의지의 약함 때문이다.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모든 도둑과 살인자들이 "내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변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변명되거나 용서될 수 있겠는가?

유혹자 사탄, 기만적인 죄, 어리석은 인간

사탄은 참으로 간사한 유혹자이다. 죄는 매우 기만적이다. 타락한 인간은 매우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참으로 간사한 유혹자는 세상 사람의 대다수를

설득해서 고의적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들이 수많은 경고와 권유를 받고 있는데도 말이다. 참으로 죄는 기만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토록 천하고 무가치한 것을 위해 영생을 버리게 할 수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피조물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내버릴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소한 것 때문에 자신을 불이나 물이나 탄광 속에 던져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혹을 받고 자신을 지옥에 던질 수 있다.

자기를 가장 나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다

악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을 죄짓도록 끌어들이어서 계속 죄 가운데 살게 한다 하더라도 그리 크게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멸망에 대해서도 막지 못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의 멸망을 막으려고 기대하는가?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심판도 자기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은혜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의 가장 큰 비난과 불평은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경계하고 대적해야 할 가장 큰 원수는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과 의지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란 자신의 맹목적인 지식, 부패한 지식, 왜곡된 감정, 걱정, 그리고 거친 감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창조론적 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성품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성품'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한 남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성품이 뭐예요? 성인용품?"

학생의 뜬금없는 질문에 교실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해프닝이었지만, 청소년들이 '성품(性品)' 하면 '성(性)'을 떠올리는 것이 적잖이 신선해서인지 요즘도 한국성품협회 소속 강사들 사이에 자주 회자됩니다.

"여러분은 '성(性)'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좋아성(좋은 성품으로 아름다운 성 지키기)으로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을 시작하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이는 중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부모와 교사가 성교육을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해합니다. 성교육의 '끝'을 막연히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 또는 '자녀가 사고 없이 무탈하게 어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교육이 그러하듯, 좋아성은 교육의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좋아성의 첫 단원은 '성(性)' 하면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성을 만드신 분, 하나님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발견하도록 '창조론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창조론적 감수성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창조론적 요소를 민감하게 찾고 인지하는 능력(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깊이 알면 알수록 성(性)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위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폴 브랜드(Dr. Paul Brand)와 필립 안시(Phillip Yancey)가 쓴 세계적 명저에서 외과 의사인 폴 브랜드 박사는 생명과 성(性)에 대해 이렇게 경탄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놀랄만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생명의 탄생을 가장 놀라워해야 한다. 인간의 탄생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신비 중의 신비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해 보라. 정자와 난자의 만남으로 단 하나의 수정란 세포에서 10조 개에 이르는 세포가 생겨나고 드디어 한 생명이 탄생한다. 바로 한 아기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 신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반면 현대 사회에서 성(sex)이라는 개념은 이상하리만치 '생명'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욕망'이나 '폭력'에 더 가까운 양상을 보여 이것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PGP(Preferring Gender Pronouns, 자신의 성별 대명사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와 같이 어색한 단어로 자신의 성을 표현하게 하거나, 자극적인 이유로 성을 소비하며 다음 세대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장면이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네스코가 전 세계에 보급한 내용에는 '젠더(gender)'와 '섹슈얼리티(sexuality)'라는 개념을 사용해 성이 사회적·문화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마치 편견이 없는 공정한 태도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특히 5세부터 '성별을 이유로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며, 9-12세에는 '젠더 역할의 고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부당한 관행에도 전하는 방법'을 익히게 합니다.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일상생활 속의 성차별 요소를 감지하는 민감성으로, 성별과 역할에 대해 자신이 차별받은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제는 이런 성인지 교육을 반응적(reactive) 교육이 아닌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강제하는 데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자발적 관심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性)' 하면 내가 받은 차별 또는 성(性)으로 인한 불균형을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여혐(여성혐오), 남혐(남성혐오)을 외치며 비생산적인 논쟁을 펼치는 것이 지난 20여 년의 성인지 교육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은 것일입니다.

좋아성은 성(性)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창조론적 감수성'으로 창조주의 세계를 민감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부모와 교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좋아성 교육의 '끝'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요10:10)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성교육, 창조주의 좋은 성품을 배우는 좋아성 교육을 이제 힘 있게 시작합시다!

다음 세대 성품교육과 좋아성(BSE) 성경적 성 가치관 교육, 시니어 목회를 위한 문의/상담은 201-693-1976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listing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Churches include Galbraith, Danjok, Gongmeili, Baskerville, Bannockburn, Boston, Saemang, Sentinels, Ilkansa, Anglican, Younglife, Younglife, Winstons, Tacoma, and others.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67. 휴혼(休婚)

오랫동안 혼인관계는 결혼과 이혼으로 양분돼 왔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봤지만, 요즘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 층은 이미 결혼제도에 회의를 느끼면서 결혼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非婚)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트렌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결혼제도에 지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부른 결정으로 황혼이혼하는 경우 부부 모두에게 더 큰 재앙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때 휴혼(休婚)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휴혼(休婚)의 뜻

휴혼은 한자로 쉼(休) 혼(婚)으로 '결혼의 휴가 기간(Marriage Vacation Period)'이라고 뜻을 풀이합니다. 직장인들에게도, 병사들에

게도 휴가가 있듯이, 결혼생활에도 잠시 일정기간 휴가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혼을 실감나게 하는 문정희의 '공황에서 쓸 편지'를 소개합니다. "여보, 일 년만 나를 찾지 말아 주세요. 나 지금 결혼 안식년을 떠나요. 그날 우리

둘이 나란히 서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혼인 서약을 한 후 여기까지 용케 잘 왔어요. ... 하지만 일 년만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병사에 게도 휴가가 있고, 노동자에게도 휴식이 있잖아요. 조용한 학자들조차도 재충전을 위해 안식년을 떠나듯이 이제 내가 나에게 안식년을 줍니다. 여보, 일 년만 나를 찾지 말아주세요. 내가 나를 찾아가지고 올테니까요." 아내가 가사와 자녀육아,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봉양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와 갈등, 육체적 피로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결혼 안식년, 결혼휴가, 즉 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휴혼은 일정 기간 배우자와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둘 사이의 치명적 오류에 숨구멍을 내주는 100세 시대의 긴 결혼생활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묘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2. 헤어지지 않기 위해 휴혼(休婚)

박시현 저<난 지금 휴혼 중

입니다>에 의하면, "2013년 겨울, 결혼을 했다. 2014년 여름, 아이를 낳았다. 그러나 2017년 가을, 남편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따로 살기로 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면서, "사랑은 완벽하지 못했고, 평생을 따로 살아온 두 개의 생활이 겹쳐진다는 것은 생각만큼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사소한 갈등이 증폭되어 부부싸움은 극에 치달았고, 싸우는 소리에 무너진 듯 더 이상 울지 않는 아이의 모습에 우리는 휴혼을 결심했다. 배우자로서의 애정과 부모로서의 의무는 유지한 채, 집만 분리하기로 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유지하되, 삶의 공간만 분리하는 새

혼), 휴혼(休婚)

졸혼(卒婚)은 '결혼생활을 아예 졸업한다'는 뜻으로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독립적으로 생활 하는 일본의 결혼풍속이고, 해혼(解婚)은 자녀가 모두 성장하고 출가한 뒤 부부관계를 털고, 서로 간섭 없이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인도의 결혼풍속이며, 휴혼(休婚)은 별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잠시 떨어져 결혼생활을 쉰다'는 뜻의 새로운 결혼 풍속도입니다.

노년의 황혼이혼은 배우자와 법적으로 모든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하려면 현실적인 이유로 망설여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적인 부부관계로 묶인 의무와 권리, 사회적인 합의들을 벗어나려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졸혼, 해혼, 휴혼 등의 단어에는 그리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감정이 쉽게 자라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 신조어들 자체가 모두 기존 사회에서 이혼으로 가기 위한 단계로 받아들여졌던 별거의 느낌을 희석하기 위한 말들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휴혼에 대한 성경적 관점

졸혼, 해혼, 휴혼 등은 잠시 일정기간 동안 이혼을 피해볼 보자는 인간적인 불안정한 방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유지, 삶의 공간만 분리

로운 결혼의 풍속도가 휴혼입니다. 휴혼 하기 전에 부부간의 중요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혼은 생각하지 말고 따로 살아 볼 것. 둘째, 각자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노력할 것. 셋째, 서로 이성문제는 만들지 말 것. 넷째, 떨어져 있는 동안 상대방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 등입니다.

3. 졸혼(卒婚), 해혼(解

혼, 해혼, 휴혼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이 법적인 결혼 졸업이라면, 졸혼, 해혼, 휴혼은 개인의 '자제숙려기간'인 셈입니다. 그리고 졸혼은 남편이 죽는 날까지 졸혼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해혼과 휴혼은 일정기간 동안의 졸혼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찌 보면 개념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졸혼, 해혼, 황혼이 황혼이혼의 대안으로, 새로운 결혼 풍속도로 생겨났고, 전

편에 불과하며, 결국 이혼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고, 위장된 속임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같은 새로운 결혼 풍속도들은 인간이 만든 인적 제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성한 결혼제도는 시대와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변할 수 없는 신적 제도입니다.

jaekunlee00@hotmail.com

지구 온도 1.5°C 이상 ...

(1면에서 계속)

10년 혹은 20년간 매년 해당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 폭염 일수가 길어지고 폭풍과 산불이 더욱 강해지는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재앙은 더 큰 피해를 끼칠 전망이다.

그러나 몇 년간 기준점을 돌파한다고 해서 '1.5°C 기준점'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인류가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이는 데 성공한다면 지구 온난화 가속을 막을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WMO는 지난 2020년부터 향후 1년 안에 '1.5°C 기준점'이 깨질 가능성을 줄곧 계산해 발표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5년 안에 기준점이 깨질 가능성이 20% 미만

으로 예측했으나, 지난해 50%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다시 66%로 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돌파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1.5°C 기준점 초과'의 의미는?

이는 직접적인 기온 측정치가 아닌, 평균 온도가 장기적인 평균 온도에 비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혹은 시원해졌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에 의존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측정하고자 과학자들은 1850~1900년 사이 평균 기온 데이터에 비교한다.

지난 수십 년 간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2018

년 이 수치를 대폭 수정해 1.5°C만 넘어도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과열된 지구는 더욱더 더워지고 있다. 그러다 2016년에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28°C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98%의 확률로 2027년 안에 더 높은 수치가 관측될 것이라며 또 한 번 최고치가 경신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일시적으로나마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영국 기상청' 소속 장기 기후 예보 책임자인 아담 스카이프 교수는 "현재 인류는 연간 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나마 1.5°C 기준점을 넘을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 인류 역사

상 기준점에 이렇게 근접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스카이프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보고된 내용 중 가장 심각하고 명백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해당 기준점이 완전히 돌파됐다고 말하기 위해선 20년간 줄곧 평균 기온 상승폭이 1.5°C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우리 지구가 과거 파리기후협약에서 정한 1.5°C 기준점을 초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WMO는 기준점을 초과하는 해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경보를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니뇨의 영향은?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엔 2가지 핵심 원인이 있다.

우선 첫 번째는 비록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다.

2번째는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의 발달 가능성이 있다.

지난 3년 동안 적도 부근 열대 태평양에선 라니냐(무역풍이 강해져 동태평양 수온이 떨어지는 현상)가 발달했다. 라니냐는 기후 온난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스카이프 교수는 "올겨울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예측한 내용이 앞으로 상당히 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 안에 엘니뇨의

발생 규모나, 이에 따라 5년 안에 발생할 사건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힘듭니다. 즉 앞으로 3~4년간 정도 2.5의 엘니뇨가 이어지면서 지구 온도를 높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 등 지구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향은?

이번 WMO 보고서에 따르면 사상 최초로 1.5°C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 북극의 평균 기온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올라갈 것이며, 향후 5년간 북반구에선 겨울철 기온 변동폭이 전 세계 평균치보다 3배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5년간 영국과 북유럽의 5~9월 강수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Langone Health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캐나다 \$130, 한국/동남아시아 \$240

6.25 73주년을 맞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맥아더 장군: "자네는 언제까지 이 호 속에 있을 것인가?"
 한국병사: "예! 각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저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명령이 없을 때엔 어떻게 할 것인가?"
 "옛!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오! 장하다, 자네 말고 또 병사들도 다 같은 생각인가?"
 "옛! 그렇습니다. 각하"
 "참으로 훌륭하구나! 여기 와서 자네와 같은 군인을 만날 줄은 몰랐네,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옛! 우리는 지금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농들의 전차와 대포를 까 부술 수 있도록 무기와 탄약을 주십시오"
 "음... 그리고 또 없나?"
 "옛! 없습니다."
 "알았네, 여기까지 와 본 보람이 있군"
 이 때 맥아더 장군은 병사의 손을 꼭 쥐고 나서 통역을 맡고 있던 김종갑 대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령! 이 씩씩하고 훌륭한 병사에게 전해 주시오, 내가 도쿄에 돌아가는 즉시 미국 지원군을 보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훌륭히 싸우라고"
 6.25 한국전쟁 당시 전선을 방문한 맥아더 사령관과 초병과의 대화를 당시 정일권 장군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



최학량 목사

사단법인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기념사업회 회장
미주 한인 군목회 회장 (예비역 육군 중령)

고요한 아침의 나라, 주말 휴일을 맞이한 한국, 이제 막 시작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이 구 소련의 지원아래 북괴 김일성의 명령으로 불법 남침의 한국전쟁은 세계를 분노케 했다. 군사적 열세, 무방비 상태의 우리 군은 삼시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맥아더 장군과 한국병사의 대화를 기록한 대로 미약하기 짝이 없는 군사 전력이었지만 장병들의 전투 자세는 결코 유약 무기력 하지 않았다.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적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애국충정과 희생정신은 세계 그 어느 나라 청년들 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자랑스런 장병들 이었다.

국군 통수권자 이승만 대통령은 발빠르게 대책에 힘을 쏟아 부었다. 즉시 일본에 주둔한 국동사령부 맥아더 장군에게 지원 요청을 하고 유엔본부에, 우방 미국 대통령에게 급보를 보내며 급기야 일요일인데도 유엔 안보리에서 한국전쟁에 지원군을 보내는 역사적인 기적을 얻어냈다.

1945.8.15 해방은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해방 이었다. 결코 광복이라고 하기에는 걸맞지 않다.

1948년 악한 마귀 사탄 공산당의 거짓 선동, 선전, 살인 방화 약탈, 테러 친인공노할 사건들, 말로 형언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극한 저항 세력을 극복하며 오직 역사의 직접적인 주권 살아 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한민국은 일어섰다. 5.10

총선, 제헌 국회, 헌법제정 공포,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 숨가쁜 정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동족상잔의 비극을 극복했다.

1948. 8.15는 조국 대한민국의 건국해로 새 역사의 장이 활짝 열렸다. 건국 까지는 참으로 멀고 험난했다.

좌,우 이념전쟁, 그 무엇보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건국정신과 공산주의와의 치열한 피의 전쟁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자체가 여지없이 훼손 당했다.

펜 대신 총을 달라며 전쟁에 뛰어들 학도병들의 애국충정은 다 어디로 숨어 버렸는지 모를 일이다.

6.25를 모르는 세대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전혀 모른다.

북괴 통일전선부의 지령을 받고 노조들을 총동 시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자랑스런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고마움을 모른다. 지금 현 정부도 성공적인 화려한 외교 정책도 굴욕 외교나 외교 참패니 트집을 잡는다. 적화세력, 주사파 종북세력, 북괴에게 적화통일을 채촉하는 역적들이 길길이 날뛰고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주한 미군철수를 부르짖고 자유민주주의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을 파멸시키기에 급급하다.

사탄의 쫓개들과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심히 위태로운 내 조국이다. 문자 그대로 풍전등화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의 은혜도 잊었다. 자유우방국가들의 은공을 외면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한번도 보지 못했던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외면했다.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그들의 희생을 상상조차 못한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인가? 좌, 우, 진보, 보수의 벽을 넘어 조국의 멸망을 막아 내야 한다.

국익을 우선시 해야 마땅하다.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총성 없는 전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121:1-2)"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그리스천이라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앞에 철저히 회개하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 주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애국충정으로 사명을 다하자.

먼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어두움의 사탄 세력과 전쟁에서 이기자.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hrc0110@hanmail.net

기/도/칼/럼

복된 소낙비를 구하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홍수, 가뭄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의 퀘벡주 중심으로 번진 산불이 계속 확산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수천 곳에서 산불이 발생, 약 3만8천헥타를 태웠다고 합니다. 남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국토가 소실된 것입니다. 수만 명의 이재민도 발생했습니다. 동부와 서부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피해가 더욱 큼니다. 진화작업을 위해 군 병력이 파견되었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1천여 명의 소방인력을 캐나다에 보내 진화 현장을 돕고 있습니다. 캐나다 퀘벡주, 온타리오주 일부에서는 스모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산불의 여파로 미국 뉴욕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라진 마스크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낮인데도 뿌연 연기가 도시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도 회색빛에 휩싸여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 동부에서 중서부까지 공기 질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수위가 넘어선 상태입니다.견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을 바라보며 인간이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맑은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일상에서 베푸시는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숨 쉬는 것, 산소를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새삼 감사하게 됩니다.하루속히 캐나다의 대형산불이 진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불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되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물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소화전은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입니다. 비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불타고 있는 캐나다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소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에스겔34:26)
bible66@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탕부 하나님 팀 켈러 두란노	새와 백합에게 배우라 손성찬 두란노	묵상과 기도 김경은 성서유니온	인물을 읽는 법에 대해 정한욱 깊은문고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손성찬 두란노	특별한 부름을 받은 이들에게 하재성 생명의 말씀사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찬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시구원처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